



# 대학등록금 추이의 국제비교 분석

김 형 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협력실장

## I. 머리말

우리나라 2003년도 적령인구 고등교육 진학률은 69.1%<sup>1)</sup>로서 일본 49.8%, 미국(폴타임) 47.7%, 영국(폴타임) 64.8%, 프랑스 약 41%, 독일 33.2% 등에 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국제 수준에 걸 맞는 대학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면 획기적인 국가재정을 투자하거나 높은 학생등록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재정 고등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국가 중 최하수준이며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역시 대단히 낮은 형편이다.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국제 교육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재정 확충이 시급하지만 국가재정 또한 여의치 아니하여 대학마다 학생등록금 인상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대학의 교육 경비 수입구조는 공공재원과 사비재원으로 구성되고, 공비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이며 사비는 학

부모, 기부자(법인, 독지가 등) 및 대학 수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입한 재원이다.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대학등록금은 당해 대학교육 서비스를 구입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수익자의 선택에 의해 부과되는 재원이다.

그러나 근대고등교육은 국가 복지나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에 속하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대학교육비를 국가가 담당하여 왔다. 이점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국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의 적정 등록금 부담 기준은 대학운영관리 재원의 총체적 구조, 국가의 교육정책, 정부의 재정능력, 국민의 교육 욕구, 민간재원의 기부 양태, 개별대학의 특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측면 등 여러 가지 상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학생입장에서는 낮은 대학교육비 부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반면 대학당국은 가능한 좋은 교육기회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양자간

1) 2003년 4월 1일 현재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19세 재학생 456,727명을 2002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18세 인구 660,637명으로 나눈 비율임.

의 욕구가 균형을 이루는 데는 대학교육비의 상당부분에 대한 국가재정 또는 사회기부금의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의 실재는 일부 대학당국에 대한 불신, 가계의 재정부담능력, 이해 부족, 그리고 등록금 수준의 모호성이나 인상과정에 대한 참여 욕구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대학등록금 정책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등록금인상 억제를 표방하여 왔고, 대학교육의 질 경쟁이 비교적 느슨하였으며, 대학별 인상률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저항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1989년 사립대학의 수업료 및 기성회비 책정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책정이 자율화됨으로써 대학간 등록금 인상률이나 연간등록금 부담 수준의 차이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 결정권(국립대학 수업료 제외)을 개별대학이 갖게 되고, 각종 사회적 불만이나 갈등이 조직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대학등록금문제가 사회적 이슈

로 등장하였다.

매년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문제로 대학당국과 학생간 협상이나 마찰 또는 대학 총장실 점거 농성과 같은 실력행사 등 소모적 다툼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의 대학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학에서의 연구나 교육경쟁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치열한 국제환경 속에서 등록금 인상문제로 대학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등록금 구조와 수준 그리고 교육비 등을 살펴보고, 이를 선진외국과 비교해 봄으로써, 대학 당국과 한국대학의 등록금 구조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대학 등록금 추이의 국제비교

### 1. 한국 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변화 추이

한국 대학의 1978년부터 2002년까지의 국

〈표 1〉 한국 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변화 추세(최고액 기준)

(단위 : 원)

연도	국립대학				사립대학			
	인문계		공학계		인문계		공학계	
	등록금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1978	119,600	100	128,200	100	328,110	100	347,280	100
1980	282,750	236	308,250	240	742,000	226	802,000	230
1985	868,000	726	973,000	759	1,229,000	374	1,232,000	355
1990	1,037,000	867	1,298,000	1,012	1,585,000	483	2,424,000	698
1995	1,849,000	1,545	2,246,000	1,751	3,607,000	1,099	4,902,000	1,411
2000	3,158,000	2,640	4,482,000	3,496	4,547,000	1,385	6,024,500	1,735
2002	3,931,000	3,286	5,496,000	4,287	5,040,000	1,536	7,056,000	2,03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문교부), 교육(문교)통계연보, 1978~2002년판

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 신입생 등록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년 기준 24년 사이에 국립대학 등록금은 33~43배,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15~20배로 상승하였다. 인문계 보다 공학계 등록금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교육원가에 따른 차등인상 비중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인상폭이 대단히 커진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경우는 1980년~1985년 기간에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이 있었고, 사립대학의 이공계 경우는 1990년~1995년 기간에 등록금 상승률이 대단히 컸다.

## 2. 일본 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변화 추이

일본 대학의 1978년이래 2002년까지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신입생기준)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1978년 기준 24년 사이에 등록금은 국립대학은 3.8배, 사립대학은 2.2배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학등록금 증가추세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단히 안정된 등록금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우선 1980년의 경우 양국 간의 환율차이에 따라 이때 이미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많은 등록금 체제가 이루어졌으며 인건비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미국 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변화 추이

미국 대학의 1978년이래 2001년까지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1978년 기준 23년 사이에 대학등록금은 4.4배~5.9배로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에 있어서 주립대학과 사립대학 큰 차이 없이 고르게 유지되었다. 특히 하버드대학과 스탠퍼드대학의 상승률이 낮은 것은 1978년 당시 등록금이 높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일본 대학의 연도별 평균 등록금 변화 추세(전국 평균)

(단위 : ¥)

연도	구분	국립대학		사립대학	
		등록금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1978		204,000	100	584,169	100
1980		260,000	127	704,890	121
1985		372,000	182	913,009	156
1990		545,600	267	1,059,161	181
1995		707,600	347	1,192,967	204
2000		755,800	370	1,283,500	220
2002		778,800	382	1,291,769	221

\* 자료 : 日本文部省, 教育指標の國際比較, 1978~2004년판

#### 4. 영국 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변화 추이

영국은 1997년 이전까지는 교육과학성장관이 매년 정한 대학등록금 금액을 학생출신 지방 교육당국에 교부하여 이것을 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에 지방교육당국이 직접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학생부담이 아니라 정부부담이었다.

그러나 1998년 수업료 제도가 개혁되어 정부 부담에서 학생개인부담으로 변화되었다. 1998년 입학자부터 순차적으로 전공에 따라 부과되었다.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감액되거나 면제되는데 1999년도에는 약 40%의 학생의 납부금이 면제되었고 감면된 해당금액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되었다.

〈표 3〉 미국 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주립대학 전국 평균		사립대학 전국 평균		시카고대학		하버드대학		스탠퍼드대학	
	등록금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1978	789	100	3,667	100	4,512	100	5,890	100	5,595	100
1983	1,270	161	6,140	167	8,952	198	9,800	166	9,706	173
1987	1,750	222	8,770	239	12,460	276	12,890	218	11,880	212
1993	2,822	357	13,812	376	18,207	403	18,745	318	17,775	317
1998	3,644	462	18,237	497	23,514	521	23,618	400	22,110	395
2001	4,281	543	21,183	577	26,475	587	26,019	441	26,192	468

※ 자료 : 日本 文部省, 教育指標の國際比較, 1978~2003년판

〈표 4〉 영국 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변화추이

(단위 : £)

연도	구분	계열공통	계열별 차등			비고
			인문계	이공계	의학계	
1978		550	.	.	.	정부부담
1984		500	.	.	.	
1987		556	.	.	.	
1989		607	.	.	.	
1990		1,675	.	.	.	
1991		.	1,755	2,650	4,770	정부부담 (계열별 차등화)
1993		.	1,300	2,770	4,985	
1994		.	750	1,600	2,800	
1996		.	750	1,600	2,800	
1997		(정부부담)				
1998		1,000				학생부담(저소득층 감면부문은 정부부담)
2001		1,075				

※ 자료 : 日本 文部省, 教育指標の國際比較, 1978~2003년판

영국대학의 1978년이래 2001년까지의 학생등록금 수준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등록금 부담주체의 변동, 계열별차등부과제의 실시와 환원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7배의 상승이 있었으며, 1994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40%정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변동이 대단히 많았던 사례이다.

### 5. 프랑스 대학의 등록금 변화 추이

프랑스 대학은 국립대학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에서 말하는 수업료 형태의 등록금 제도는 없고 학생의 건강진단료, 학생보험료 및 공제 조합금으로서 납부금이 있다. 1978년이래 2001년까지의 학생 납부금(등록금)은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프랑스 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변화 추이

(단위 : 프랑)

연도	1978	1986	1990	1995	1999	2000
금액	150	1,050	1,495	1,709	1,824	1,849

<표 6> 국가간 대학등록금 증가의 폭 비교(1978 및 2000년대)

(단위 : 천원)

구분		1978년	2002년	증가율(%)	비고
한국	국립(인문계)	120	3,931	3,276	
	사립(인문계)	328	5,040	1,536	
일본	국립	2,232	8,520	382	
	사립	6,388	14,132	221	
미국	주립	914	4,957(2001)	542	
	사립	4,345	24,530(2001)	565	
영국	국립	1,203	2,352(2001)	196	
프랑스	국립	26	314(2000)	1,208	수업료 없음

\* 주 : 대학등록금 계산은 2004년 2월17일 기준 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천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였으며, 설립별 또는 계열별 평균금액이며 한국의 경우는 최고금액을 기준 하였음.

### 6. 국가간 종합비교

학생의 대학등록금 부담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나라의 대학운영재원 구조와 경제·사회적 상황(국민소득이나 진학률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간 금액의 단순 비교로서 어떤 의미 있는 효과를 얻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1978년의 경우와 2000년대 최근의 등록금 변화를 국가간 비교함으로써 대학교육이나 사회현상의 변화의 폭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년 사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립대학 인문계는 32배 사립대학 인문계는 15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일본의 경우는 국립대학 3.8배 사립대학 2.2배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는 대체로 5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이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

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공재정 지출이 극히 미약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기준년도인 1978년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일본의 20분의 1 그리고 미국의 10분 1의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의미에서 증가액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가 1980년말 6조6,000억 원에서 2003년 10월 현재 1,172조로 177.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사회환경이 대학 등록금의 높은 증가율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Ⅲ. 대학생 1인당 교육비 국제비교

#### 1. 한국대학생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우리나라 대학생(일반대학기준)의 1978년

부터 2000년 사이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 2. 외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미국의 30%, 일본의 56% 수준이며, 1978년도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10분 1 수준이었다.

### Ⅳ. 고등교육비의 공재정 부담 비율 국제비교

고등교육비의 공재정 부담 비율을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비의 공재정 부담비율은 23.3%로 OECD

<표 7> 한국대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 천원)

1978		1980		1985	
국립	사립	국립	사립	국립	사립
843	511	704	756	1,381	1,482
1990		1995		2000	
국립	사립	국립	사립	국립	사립
2,829	2,479	5,566	5,672	7,533	8,188

※ 주 : 위 교육비 산출은 연도별 대학예산 총액을 당해연도 재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서, 시설(교사신축 등) 확충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상적 교육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와는 차이가 있다.

<표 8> 대학생 1인당 교육비 국제 비교표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1978	576	936	6,135	6,947	.	.
2000	6,118	10,914	20,358	9,667	8,373	10,898

※ 자료 : 日本 文部省, 教育指標の國際比較, 2004년판중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참조, 1978년의 경우는 국가별 교육비를 미화(\$)로 환산 표시

(표 9) 고등교육비 공재정 부담비율 국제비교표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OECD평균
1995	.	42.0	.	63.9	84.3	92.8	.
2000	23.3	44.9	33.9	67.7	85.7	91.8	78.6

※ 자료 : 日本文部省, 教育指標の國際比較, 2004년판

평균 78.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며, 인근 일본의 절반수준에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재정 부담비율은 점차 높이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 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상승률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고, 둘째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미국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셋째 고등교육비에 대한 공재정 부담률이 23.3%로 OECD 국가평균 78.6%의 3분 1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학생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경쟁하여 대등한 수준의 교육여건을 확보하려면 등록금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 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4배 상승<sup>2)</sup>하였으나 대학등록금이 20배 이상 상승한 것은 그 만큼 대학교육에 투입한 비용이 증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 교육지표인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은 시설설비수요의 증가나 인건비 상승 그리고 금융시장규모증가와 관련한 통화팽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 협상이나 대학시설에 대한 점거농성과 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학교육비에 대한 공재정 투입비율을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사회기부금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

2)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1995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1978년 27에서 2002년 130으로, 일본은 1978년 68에서 2002년 100으로, 미국은 1978년 43에서 2002년 118로 그리고 영국은 1978년 34에서 2002년 118로 변화되었다.